

금천구, '약자와의 동행' 성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결실

서울시 우수사례 2개 사업 선정...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6년 약자동행 성과 우수사례'에서 생계·돌봄 분야 교육문화 분야 각 1건, 총 2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개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 가구를 지속 관리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 ▲노년학자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금천형 노인학사 평생학습 통합지원 모델'이다.

생계·돌봄과 교육문화 분야에서 모두 우수사례가 선정되며 금천구의 약자동행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탈락

하거나 급여가 중단된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업이다.

구는 대상자 1443가구를 관리하며 재신청과 재신청을 지원했고, 그 결과 101가구가 다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총 4억3000만원 규모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특히 수급 탈락 이후에도 대상 가구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재신청 가능 시기를 안내하는 등의 적극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천형 노인학사 평생학습 통합지원 모델"은 응계선진농인(노년학자)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전문상담,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 사업이다.

노년학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성취의 주체로 바라보고,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 점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런 성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약자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온 금천구 정책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복지 사각지대와 교육소외계층을 위해 현장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 온 약자동행 정책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영등포구, 안양천 '제2파크골프장' 완공... 서울시 최초 36홀 완성

오는 9월부터 정식 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최근 안양천에서 '영등포 제2파크골프장'을 개회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36홀 파크골프장 완공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와 동호인,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제2파크골프장의 준공을 축하했다.

행사는 현관 제막식과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하는 시타 행사,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제2파크골프장은 양평동 33-3번지 일원 잔디광장에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제1구장(1만8236㎡)과 이번에 조성된 제2구장(2만1797㎡)이 연계됨에 따라, 영등포구는 총면적 3만9033㎡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서울시 자치구 최대 규모의 36홀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게 됐다.

제2구장 조성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하천 관리와 치수 안전성 확보 문제로 관계기관으로 부터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받으며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는 포기하지 않고 관

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갔으며, 2000여명이 넘는 파크골프 동호인과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구는 지난 1월22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왔으며, 지난 23일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며 서울시 최초의 정식 36홀 파크골프장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구는 향후 한강유역환경청의 준공승인 절차와 세부 운영 준비를 마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이명철 구청장이 최근 청량리역 광장에서 열린 왕산로 빛이거리 조성사업 추진보고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랑구 목동도깨비시장 유망 골목상권 육성

중기부 사업에 최종 선정... 환경 개선·편익 지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목동에 위치한 목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 공모에서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개선 역할을 하는 골목형상점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목

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는 올해 말까지 복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총 3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구는 확보한 사업비를 바탕으로 목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문화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권 조성을 위한 기반 ▲청정 기반 조성 ▲상권 환경개선 ▲홍보 및 편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는 다양한 업종의 점포가 밀집한 생활밀착형 상권으로, 2024년 2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애용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역광역과 인접하고 주거 밀집지역을 배후에 두고 있어 상점 가능성이 높은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선정은 목동도깨비시장 골목형상점가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골목상권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무더운 여름철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은평구, 내달부터 생수 나눔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생수 나눔 캠페인'을 운영한다.

올해로 6년째 맞는 이번 캠페인은 휴식기 이동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고충노동자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수도권기상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규장건축노동조합네트워킹, 서울시노동생태협의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 제공되는 생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구는 제주삼다수 약 4500병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수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입구 냉동고에 비치되며, 이동노동자는 1인당 하루 1병씩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30분~오후 5시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동노동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lbo.co.kr

11월까지 위생해충 방역소득

강북구, 모기유충 서식지 제거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여름철 모기 등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 방역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보건소 방역기동반 3개조를 편성해 지역내 전역에서 모기와 위생해충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방역을 이끈다.

방역소득은 등별 순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등별 순회 방역 일정에 맞춰 정화소 환기구에 모기 유충 제거를 실시하고 모기 유충 서식지를 제거한다.

윤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항일 의병 '왕산 허위' 선생의 뜻따라 동대문구, 내달 왕산로 빛이거리 조성

동대문구, 내달 왕산로 빛이거리 조성

동대문구가 지난 23일 청량리역 광장에서 '왕산로 빛이거리 조성사업' 추진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왕산로는 항일 의병운동에 이끈 왕산 허위 선생의 호를 따 이름 붙인 도로로, 신상봉역에서 청량리역 광장까지 이어진다.

구는 왕산 허위 선생이 보여준 의병정신과 나라를 밝힌단 뜻을 기리고 오늘날의 도시공간에 애국가 위해 내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거리를 밝히는 조형 설치 뿐 아니라, 왕산로의 역사적 상징성과 청량리 일대의 도시 이미지를 함께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 구간에선 미디어 시설물, 보행로 고보라이트, 경관조형 등이 설치된다.

구는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

면 청량리역 광장 일대 야간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왕산로의 상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한화케미칼, 롯데백화점 등 관계 기관과 민간기업이 사업 취지에 공감해 협력을 해왔으며, 구는 기간 간 조정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구는 '왕산로 빛이거리'가 역사와 문화, 야간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무리 공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왕산로의 의미와 자연스레 접하고, 동대문구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lbo.co.kr

등산객 입맛을 사로잡아! 관악산 대표메뉴 개발 지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산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먹거리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관악산 대표메뉴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점포 6곳을 모집한다.

이더의 열망으로 관악산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구는 지난 3월 '관악산 방문객 유익에 따른 상권 활성화'와 'T'를 주제로 관광복합 유입을 위한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일대와 콘텐츠 조성에 힘쓰고 있다.

구는 최근 지역의 특색 있는 맛을 찾아가는 미식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해 등산객의 선행 후속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관악산 대표메뉴'를 개발, 지역 대표 먹거리 콘텐츠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의식 전문가의 맛

솔루션 컨설팅을 통해 기존 메뉴의 경쟁력을 높이는 '큐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포별 메뉴에 관악산의 특색을 담은 스토리텔링을 더해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주민과 등산객의 관심과 구매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구는 개발된 대표메뉴를 정식 출시하기에 앞서 길거리 시식 플랫폼 등을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메뉴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표메뉴로 선정된 점포에는 온라인 홍보비 100만원과 내비게이션 등 홍보물을 지원하며, 관악구 홈페이지와 SNS에도 소개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7월6일 오후 6시까지다. 지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7월13일 발표된다.

윤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26년 상반기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 수여



모범·선행구민 표창

경서구가 지난 24일 마곡 서울청합회 엠블러스(M+)에서 '2026 상반기 모범 및 선행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천은 진교호 구청장이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도봉구, 6~10일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모집

도봉구(구청장 오은석)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자 실태조사원' 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동시에 지역내 공공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다.

실태조사원은 전화상담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사무보조, 분배 및 물품 관리, 자료 정리,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보조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부처와 연계해 긴급 생계 지원과 일자리 우선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별과 학력 제한은 없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6~10일이다.

윤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종로구, 10일부터 자문박람회전시서 입주작가展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7월10일~9월11일 11주 동안 북촌전시실에서 자문박람회전시서 6기 입주작가들의 무료 달례이 전시 '히치하이커들의 사회'를 개최한다.

자문박람회전시서에서는 평창동과 부암동 일대의 풍부한 문화 예술 자원을 토대로 2020년 9월 문을 연 창작 플랫폼이다.

이번 전시는 무용, 작곡 및 사운드아트, 미디어아트, 설치, 회화를 다루는 다섯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7월10일~21일 무용가 이지연이 첫 주자로 나선다. 7월24일~8월1일 임형섭이 작곡과 사운드아트로 관객을 맞는다. 8월7~16일 김애인은 관람하는 사람의 반응을 매개로 작동하는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8월21일~9월6일 김준서는 설치와 키보드, 영상물을 아우르는 전시를 펼치고, 9월11~20일 강호성은 개인적 경험을 화폭에 새긴다.

전시 관람은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가능하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양천구, 17일까지 홍보 아카데미 참여자 공모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내 공중생태대역지역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미디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양천 홍보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오는 7월17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공항공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크리에이티브 유튜버·방송PD·아나운서 등 미디어 분야 진로를 꿈꾸는 초·중·고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기초교육부터 방송국 견학, 현직 전문가와의 만남, 콘텐츠 제작 실습까지 미디어 진로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인 7월27일부터 8월17일까지 2주간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4회 전과정(연계형)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수료식 개최(수료증 수여)와 함께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해 성실한 도전을 격려할 계획이다.

박선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구로구, 공민복지 조성 '그린 파트너스'사업 추진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공민복지 조성과 연결하는 '구로 그린 파트너스(Guro Green Partners)' 사업을 추진한다.

구 차원에서 기부를 통해 공민복지나 사회복지와 시설물 설치를 연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주민과 기업 등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공민과

복지에 나누를 심거나 공민 의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민간 협력형 복지 조성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일반 시민, 소상공인, 기업, 관공립 등으로 제한이 없다. 기부 참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기부금품 접수는 기부금품지원회 심의 또는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역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수변 산책로와 주민 요청 지역 등이다. 구는 현장 여건과 관리 가능성 등을 검토해 적합한 장소와 방식을 정하고, 첫 사례로는 구로5동 거리공원 제2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선진 기자 zini@siminilbo.co.kr

광진구, '1인 기업설' 사용 사회적경제기업 모집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내 '1인 기업설' 사용기업을 모집한다.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사무공간 확보 부담을 덜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모집은 공식 마감시까지도 상시 모집하며, 사용 공간은 광나루동 478 광진점점대역센터 2층 2호에 위치한 '1인 기업설'이다.

구에 따르면 1인 대상은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 또는 개인 설립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신청일 기준 사업 개시 1년 3개월 이내의 초기 창업자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1인 기업 입주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사업 가능하다. '1인 기업설'은 총 8석 규모로 운영되며 기업당 최대 2석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